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COVID-19 스트레스, 감성지능,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능력과의 관계

김경아
해전대학교 간호학과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Abil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in Some Area

Kyeong-Ah Kim
Department of Nursing, Hyejeon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자료는 H대학 재학 중인 간호 대학생 220명으로부터 2022년 8월 22일에서 9월 16일까지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WIN 25.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대인관계능력($r=.641, p<.001$), 대학생활적응능력($r=.499, p<.001$)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7.301, p<.001$).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능력에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요인은 간호학과 지원동기($t=4.292, p<.001$), 감성지능($t=3.851, p<.001$), COVID-19 스트레스($t=-2.591, p=.010$), 지난 학기 수업에 대한 만족도($t=2.328, p=.021$), 나이($t=2.247, p=.026$) 이었고, 이들 요인의 결정계수인 R^2 은 .478로 47.8%의 설명력을 보여 주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COVID-19 스트레스를 낮추고, 감성지능을 높이며, 수업 만족도를 높이는 감정 관리와 회복력 강화가 포함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학업성취 프로그램을 나이와 지원동기를 고려하여 개발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associated with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in some areas. A questionnaire was used to collect data from 22nd August to 16th September 2022. The subjects were 220 nursing students at H colleg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the SPSS/WIN statistics 25.0. Our results indicate that interpersonal ability ($r=.641, p<.001$), adjustment to college life ($r=.499, p<.001$),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nursing students are positively correlated. The factors affecting the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some area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multiple regression models ($F=17.301, p<.001$). These factors include motivation for nursing ($t=4.292, p<.001$), emotional intelligence ($t=3.851, p<.001$), COVID-19 stress ($t=-2.591, p=.010$), satisfaction with last semester's class ($t=2.328, p=.021$), and age ($t=2.247, p=.026$); these variables showed 47.8% of the explanation.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ress man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programs that include emotional management and resilience reinforcement to help reduce COVID-19 stress and increase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class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age of nursing students and their motivation for pursuing nursing needs to be considered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se programs.

Keywords : Adjustment, College Life, COVID-19,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Nursing, Stress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22 Research Grant of Hyejeon College.

*Corresponding Author : Kyeong-Ah Kim(Hyejeon College)

email: kka-book@hj.ac.kr

Received December 5, 2022

Revised December 28, 2022

Accepted January 6, 2023

Published January 31,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12월 이후부터 2022년 현재까지 COVID-19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감염 확산이 되고 있다 [1]. 따라서 2019년 말 이후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코로나 블루라는 상황에 집단적으로 노출되었다. 스트레스는 내부와 외부의 환경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COVID-19의 팬데믹 환경에서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었다[2].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 대학생 또한 고립감에 따른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COVID-19 스트레스가 높으면 사회적 고립감이 컸고, 대학생활적응도 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더불어서 현재 간호 대학생은 비 대면수업에서 전면 대면수업으로 전환되었고, 의료기관에서 실습을 하는 학년은 대면 임상실습을 진행함으로써 더욱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

따라서 COVID-19 상황에서 간호 대학생은 높은 스트레스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높은 스트레스는 대인관계능력을 감소시킨다. 선행 연구결과에서 간호 대학생은 대인관계가 조화로운 때, 스트레스에도 잘 대처하고, 인성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또 다른 연구결과에서 간호 대학생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보여주었으며[6],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이와 같은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는 대인관계능력을 감소시키고, 인성에도 영향을 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인성은 한 개인이 가진 특성으로 감성지능과 연관성이 높고, 감성지능은 정서, 감정, 의지, 인내성 측면에서의 개인적 특성을 나타낸다[5].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높은 감성지능은 대인관계를 포함하여 대학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하도록 하여 대학생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5].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고[8],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이 좋을수록 의사소통 능력과 감성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10].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높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수록 대학생활에도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1].

선행 연구결과들을 고찰하면, 대학생활적응능력은 대학생활에서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교과활동 및 비교과 활동에 적응하는 과정에 필요한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간호 대학생은 학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 할수록 대학생활적응력이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13].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간호 대학생은 대인관계 능력이 좋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선행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COVID-19 상황에서 대부분의 간호 대학생은 스트레스가 높고, 높은 스트레스는 대인관계능력과 감성지능을 감소시킴으로써 대학생활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능력에 이들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With Corona' 시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능력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함으로써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능력에 COVID-19 스트레스, 감성지능, 대인관계능력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되어 목적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1)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COVID-19 스트레스, 감성지능,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생활적응능력과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COVID-19 스트레스, 감성지능,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생활적응능력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4)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COVID-19 스트레스, 감성지능,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생활적응능력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대학생활적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COVID-19 스트레스, 감성지능,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능력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능력에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H대학의 간호학과 1, 2, 3, 4학년에 재학 중이고,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여 자발적인 의사로 참여를 희망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 power 3.1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alpha=0.05$, 효과크기(effect size) 0.15, 검정력(power) 0.95로 선정하였을 때, 208명으로 산출되었다.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탈락률 20%를 감안하여, 총 250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고, 불완전 응답을 한 30부를 제외하여, 220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 율은 88% 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COVID-19 스트레스

연구에서 COVID-19 스트레스는 Kim 등[15] 이 개발한 척도로 21문항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등[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4 이었고, Kim[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8 이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COVID-19 스트레스의 Cronbach's α 는 .903 이었다.

2.3.2 감성지능

본 연구에서 감성지능은 Wong과 Law(2002)가 개발한 도구를 Jung[17]의 연구에서 사용한 16문항의 7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7점 척도는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ung[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0이었고, 본 연구에서 감성지능의 Cronbach's α 는 .915 이었다.

2.3.3 대인관계능력

연구에서 사용된 대인관계능력은 Schlein, Guerney와 Stover(1971)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Moon (1980)이 변안한 척도이다[18]. 이 도구는 만족감 4문항, 의사소통 4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5문항, 이해성 4문항으로 총 25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더 좋은 것을 의미한다. Moon의 연구[18]에서 Cronbach's α 는 .760이었고, Oh[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0이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의 Cronbach's α 는 .936이었다.

2.3.4 대학생활적응능력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능력은 Baker와 Siryk(1989)가 작성한 문항 중 Park[20]이 수정한 25문항의 5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역 문항을 처리했을 때,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Park[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0이었고,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능력 Cronbach's α 는 .867 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연구는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자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 지역 1, 2, 3, 4학년 간호 대학생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자발적 참여 의사를 보인 경우만 설문지를 배부하여 스스로 기록하게 하였다. 설문지는 총 250명에게 배부하여, 불완전 응답을 한 30부를 제외하고, 220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 율은 88%이었다.

2.5 윤리적 고려

연구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도구들은 연락 가능한 저자에게는 이 메일을 통해 사용해도 됨을 허락받았다.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 방법을 설명하였다. 설명한 후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는 간호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물과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응답을 원치 않으면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 설문지 회수는 배부 후 일주일 이내에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하여 봉한 함에 넣도록 설명하였다. 또한 회수된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의 목적에만 사용됨을 알려 주었다.

2.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COVID-19 스트레스, 감성지능,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생활적응능력과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증은 Scheffé test를 하였다.
- 3)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COVID-19 스트레스, 감성지능,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생활적

응능력과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4)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COVID-19 스트레스, 감성지능,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생활적응능력과 관계를 확인하고, 대학생활적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5) 설문지 문항의 신뢰도 측정은 Cronbach's α 로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학년, 종교, 월 소득, 친한 친구 유무, 부모님과 동거 유무, 동아리활동 유무, 지난 학기 수업에 대한 만족도, 지난 학기 학업 성적, 간호학과 지원동기, 간호학과 전공 만족도,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았다. 연구에 참여한 간호 대학생 220명 중 여학생이 191명(86.8%)으로 많았고, 연령 분포는 20~29세가 176명(80.0%)으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1, 2, 3학년이 각 60명(각 27.3%)이었고, 4학년이 40명(18.1%)을 차지하였다. 간호 대학생은 종교를 안 가진 경우가 143명(6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 소득은 한 달에 301~400만원이 61명(27.7%)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 대학생은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가 205명(93.2%)으로 많았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155명(70.5%)으로 많았으며, 동아리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170명(77.3%)으로 많았다. 간호대학생의 지난 학기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97명(44.1%), '만족하는 편'이 94명(42.7%), '아주 만족'이 18명(8.2%)로 '보통' 이상이 전체 220명 중 209명(95.0%)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지난 학기 학업 성적은 중위권(평균 B)이 91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가 79명(35.9%), '취업률이 높아서'가 49명(22.3%), '전문직 이라서'가 44명(20.0%) 순으로 분포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74명(33.6%), '만족하는 편'이 109명(49.5%), '아주 만족'이 31명(14.2%)로 '보통' 이상이 전체 220명 중 214명(97.3%)을 차지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보통임'이 75명(34.1%), '건강함'이 93명(42.2%), '매우 건강함'이 31명(14.1%)으로 '보통임' 이상이 전체 220명 중 199명(90.4%)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in some area (n=2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Male	29	13.2
	Female	191	86.8
Age (yr)	≤19	2	0.9
	20-29	176	80.0
	30-39	17	7.7
	≥40	25	11.4
University grade	1st	60	27.3
	2nd	60	27.3
	3rd	60	27.3
	4th	40	18.1
Religion	Not	143	65.0
	Christianity	52	23.6
	Buddhism	10	4.5
	Roman catholicism	14	6.4
	The other	1	0.5
Monthly income	≤200	23	10.5
	201-300	39	17.7
	301-400	61	27.7
	401-500	39	17.7
Close friends	No	15	6.8
	Yes	205	93.2
Living with parents	No	65	29.5
	Yes	155	70.5
Extracurricular activities	No	170	77.3
	Yes	50	22.7
Satisfaction with last semester's class	Very dissatisfied	3	1.4
	Dissatisfied	8	3.6
	Usually	97	44.1
	Satisfied	94	42.7
Last semester's academic records	Very satisfied	18	8.2
	Top(A+)	21	9.5
	Upper middle(A)	64	29.1
	Medium(B)	91	41.4
Motivation for nursing	Low Middle(C)	35	15.9
	Down(D)	9	4.1
	Considering grades	4	1.8
	Through aptitude & interest	79	35.9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Recommendation of parents or teachers	25	11.4
	The high employment rate	49	22.3
	Because of professional	44	20.0
	The other	19	8.6
Current overall health	Very dissatisfied	0	0
	Dissatisfied	6	2.7
	Usually	74	33.6
	Satisfied	109	49.5
Current overall health	Very satisfied	31	14.2
	Very unhealthy	1	0.5
	Unhealthy	20	9.1
	Normal healthy	75	34.1
	Healthy	93	42.2
Current overall health	Very healthy	31	14.1

3.2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COVID-19 스트레스, 감성지능,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능력과의 차이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COVID-19 스트레스, 감성지능,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능력과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Table 2-1과 Table 2-2와 같았다. 간호대학생의 성별($t=-1.981, p=.049$), 나이($F=2.960, p=.033$)는 간호대학생의 COVID-19 스트레스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성별($t=2.648, p=.009$), 지난 학기 학업 성적($F=2.765, p=.028$), 간호학과 지원 동기($F=3.425, p=.005$), 간호학과 전공 만족도($F=10.826, p<.001$),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F=10.083, p<.001$)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학년($F=3.580, p=.015$), 친한 친구 유무($t=-2.338, p=.020$), 간호학과 지원동기($F=4.716, p<.001$), 간호학과 전공 만족도($F=5.909, p<.001$),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F=10.378, p<.001$)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지난 학기 수

업에 대한 만족도($F=8.492, p<.001$), 지난 학기 학업 성적($F=3.757, p=.006$), 간호학과 지원동기($F=3.356, p=.006$), 간호학과 전공 만족도($F=29.413, p<.001$),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F=9.788, p<.001$)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능력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3.3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COVID-19 스트레스, 감성지능,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생활적응능력과의 상관관계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COVID-19 스트레스, 감성지능,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생활적응능력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Table 3과 같았다. 간호대학생의 COVID-19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능력($r=-.135, p=.046$)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대인관계능력($r=.641, p<.001$), 대학생활적응능력($r=.499, p<.001$)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능력($r=.421, p<.001$)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2-1. Differences between COVID-19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abil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in some area

Characteristics	Categories	COVID-19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ability		Adjustment to college lif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n=220)							
Sex	Male ^a	60.03±18.14	-1.981 (.049)	86.45±9.73	2.648 (.009)	91.90±12.40	0.091 (.927)	82.62±15.23	1.250 (.213)
	Female ^b	65.60±13.42	a <b< b=""></b<>	79.57±13.46	b ^a	91.67±12.46		79.39±12.59	
Age (yr)	≤19 ^a	71.00±15.56	2.960 (.033) b<d<c<a	79.00±5.66	0.686 (.562)	92.50±9.19	0.162 (.922)	73.50±16.26	1.094 (.353)
	20-29 ^b	63.47±14.34		80.75±13.72		91.92±12.99		79.98±13.43	
	30-39 ^c	70.88±13.13		76.18±12.17		89.76±10.72		75.41±10.71	
	≥40 ^d	70.20±12.10		81.56±10.41		91.40±9.76		82.16±10.59	
University grade	1st	13.97±1.69	0.726 (.537)	13.27±1.71	1.096 (.352)	11.92±1.54	3.580 (.015) b<a<d<c	12.34±1.59	0.469 (.704)
	2nd	13.66±1.76		12.62±1.63		10.38±1.34		12.27±1.58	
	3rd	16.28±2.10		13.75±1.78		14.22±1.84		14.50±1.87	
	4th	13.47±2.13		13.17±2.08		11.92±1.88		12.78±2.02	
Religion	Not	65.19±14.28	0.440 (.780)	80.71±13.44	1.574 (.182)	91.21±12.84	0.579 (.678)	79.80±12.92	1.498 (.204)
	Christianity	62.92±13.90		77.90±13.26		91.85±12.14		78.10±13.63	
	Buddhism	67.50±15.84		81.90±11.36		91.30±13.88		80.70±11.00	
	Roman catholicism	66.57±14.70		85.07±10.48		96.50±7.85		84.07±11.13	
	The other	71.00±00.00		101.00±00.00		91.00±00.00		104.00±00.00	
Monthly income	≤200	67.91±15.42	0.751 (.558)	82.17±12.17	0.596 (.666)	94.26±11.99	0.755 (.556)	75.65±9.46	0.908 (.460)
	201-300	64.62±15.49		78.74±15.34		91.28±10.88		79.41±14.00	
	301-400	64.23±14.07		80.61±12.50		90.15±12.25		79.61±13.97	
	401-500	67.03±14.24		82.56±11.29		90.79±11.57		81.92±12.48	
	≥501	63.07±13.04		79.41±14.17		93.21±14.27		80.55±12.72	
Close friends	No	62.07±13.57	-0.791 (.430)	73.67±18.27	-1.522 (.149)	84.53±13.66	-2.338 (.020) a<b	74.33±18.65	-1.203 (.248)
	Yes	65.08±14.27		80.97±12.69		92.22±12.20		80.22±12.43	
Living with parents	No	67.02±14.19	1.452 (.148)	81.63±12.08	0.841 (.401)	92.34±10.41	0.493 (.623)	78.71±12.93	-0.821 (.412)
	Yes	63.97±14.17		79.99±13.68		91.43±13.20		80.28±13.01	

Table 2-2. Differences between COVID-19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abil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in some area (n=2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COVID-19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ability		Adjustment to college lif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Satisfaction with last semester's class	Very dissatisfied	69.33±14.84	2.247 (.065)	66.00±34.39	2116 (.080)	80.00±35.54	1.872 (.116)	58.33±4.73	8.492 (<.001 ^{**}) a<b<c <d<e
	Dissatisfied	55.25±12.73		81.38±11.91		88.25±5.23		74.38±9.83	
	Usually	65.70±13.15		79.68±12.89		92.23±12.66		76.33±11.19	
	Satisfied	63.48±14.41		80.44±13.07		90.79±11.26		82.93±13.11	
	Very satisfied	71.22±17.08		86.94±9.87		97.11±12.81		88.39±13.53	
Last semester's academic records	Top(A) ^a	65.24±15.35	0.819 (.514)	83.81±13.27	2.765 (.028) e<d<b <c<a	94.71±11.56	1.498 (.204)	85.48±10.87	3.757 (.006 ^{**}) e<d<c <b<a
	Upper middle(A) ^b	66.94±15.00		81.13±12.73		90.61±12.77		81.77±14.46	
	Medium(B) ^c	64.42±13.62		81.47±13.17		92.42±12.33		79.77±12.35	
	Low middle(C) ^d	63.57±13.39		77.71±11.27		92.11±11.92		75.46±11.34	
	Down(D) ^e	59.00±15.32		68.67±18.53		83.56±13.38		70.22±10.22	
Motivation for nursing	Considering grades ^a	73.25±11.95	0.832 (.528)	85.00±6.16	3.425 (.005 ^{**}) c<f<d<e <b<a	100.25±5.56	4.716 (<.001 ^{**}) c<f<d<e <b<a	78.00±12.19	3.356 (.006 ^{**}) c<f<a<d <e<b
	Through aptitude & interest ^b	64.78±14.21		84.84±12.68		95.94±10.69		83.76±13.53	
	Recommendation of parents or teachers ^c	63.76±10.60		74.76±15.19		84.96±11.69		73.24±13.12	
	The high employment rate ^d	62.71±15.67		78.47±13.02		89.57±15.50		78.31±11.34	
	Because of professional ^e	65.66±15.84		78.68±12.55		91.16±10.36		79.89±12.86	
	The other ^f	68.68±10.38		78.21±11.36		87.89±10.61		76.21±10.69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Very dissatisfied ^a	00.00±00.00	0.399 (.754)	00.00±00.00	10.826 (<.001 ^{**}) b<c<d<e	00.00±00.00	5.909 (<.001 ^{**}) b<c<d<e	00.00±00.00	29.413 (<.001 ^{**}) b<c<d<e
	Dissatisfied ^b	65.83±13.14		64.00±23.07		83.33±24.47		64.00±9.70	
	Usually ^c	66.22±13.04		76.32±12.03		88.12±12.73		72.05±11.21	
	Satisfied ^d	64.35±13.48		82.00±11.78		92.95±10.69		82.83±10.71	
	Very satisfied ^e	63.32±19.22		88.19±13.00		97.45±11.68		90.81±11.77	
Current overall health	Very unhealthy ^a	73.00±00.00	1.232 (.298)	28.00±00.00	10.083 (<.001 ^{**}) a<b<c <d<e	39.00±00.00	10.378 (<.001 ^{**}) a<b<c <d<e	53.00±00.00	9.788 (<.001 ^{**}) a<b<c <d<e
	Unhealthy ^b	69.50±12.56		75.05±14.45		85.45±13.85		69.55±12.75	
	Normal healthy ^c	66.28±14.70		77.36±12.73		90.47±12.51		77.24±12.20	
	Healthy ^d	63.33±12.66		82.26±11.50		92.08±10.11		81.70±11.54	
	Very healthy ^e	62.84±17.79		87.84±11.69		99.29±11.12		87.90±12.72	

Table 3. Correlation among COVID-19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abil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in some area (n=220)

Variables	COVID-19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ability	Adjustment to college life
COVID-19 stress	1			
Emotional intelligence	.099 (.145)	1		
Interpersonal ability	.011 (.876)	.641 ^{**} (<.001)	1	
Adjustment to college life	-.135 [*] (.046)	.499 ^{**} (<.001)	.421 ^{**} (<.001)	1

* : p<0.05, ** : p<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in some area (n=220)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Sig.	Tolerance	VIF
Constants	23.606	8.332		2.833	.005**		
COVID-19 stress	-.125	.048	-.137	-2.591	.010*	.894	1.119
Emotional intelligence	.263	.068	.268	3.851	<.001**	.517	1.933
Interpersonal ability	.126	.069	.121	1.812	.071	.567	1.764
Age	1.904	.847	.126	2.247	.026*	.803	1.245
University grade	-.728	.617	-.060	-1.179	.240	.968	1.033
Monthly income	.682	.511	.069	1.335	.183	.933	1.071
Satisfaction with last semester's class	2.374	1.020	.138	2.328	.021*	.713	1.402
Last semester's academic records	-1.197	.730	-.089	-1.638	.103	.842	1.188
Motivation for nursing	4.893	1.140	.274	4.292	<.001**	.618	1.618

F=17.301(p<.001), R²=.478(Adj R²=.450) / Durbin-Watson : 2.002

* : p<0.05, ** : p<0.01

3.4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능력에 영향 요인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COVID-19 스트레스, 감성지능, 대인관계능력, 나이, 간호학과 학년, 가정의 월 소득, 지난 학기 수업에 대한 만족도, 지난 학기 학업 성적, 간호학과 지원동기, 간호학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독립변수로 하였고, 대학생활적응능력을 종속변수로 회귀모형을 생성하였다.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F 통계량은 17.301 이었고, 유의확률 p<.001로 유의하므로 회귀 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회귀모형은 적합하다. 회귀계수는 대학생활적응능력 = 23.606 - 0.125(COVID-19 스트레스) + 0.263(감성지능) + 0.126(대인관계능력) + 1.904(나이) - 0.728(간호학과 학년) + 0.682(가정의 월 소득) + 2.374(지난 학기 수업에 대한 만족도) - 1.197(지난 학기 학업 성적) + 4.893(간호학과 지원동기)로 설명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능력에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요인은 COVID-19 스트레스(t=-2.591, p=.010), 감성지능(t=3.851, p<.001), 나이(t=2.247, p=.026), 지난 학기 수업에 대한 만족도(t=2.328, p=.021), 간호학과 지원동기(t=4.292, p<.001)이었고, 이들 요인의 결정계수인 R 제곱은 .478로 47.8%의 설명력을 Table 4와 같이 보여준다.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공

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VIF)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0.517 ~ 0.968로 모두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도 1.071 ~ 1.933으로 10미만이므로 다중 공선성이 높은 변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잔 차의 독립성을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 값이 2.002로 2와 가까워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고찰

본 연구에 참여한 일 지역 간호 대학생은 여학생이 많았고, 연령 분포는 20~29세가 가장 많았다. 학년별 분포는 1, 2, 3학년이 각 60명이었고, 4학년이 40명을 차지하였다. 간호 대학생은 종교를 안 가진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월 소득은 한 달에 301~400만원이 가장 많았다. 또한 간호 대학생은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지난 학기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 95.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지난 학기 학업 성적은 중위권(평균 B)이 가장 많았고,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취업률이 높아서', '전문직이라서'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

족도는 '보통' 이상이 97.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보통임' 이상이 90.4%를 차지하였다. 이는 여학생이 대부분 이었고, 종교는 없다가 많았으며, 학교 성적은 중이 가장 많았고, 전공만족은 만족이 많았다는 Choi[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종교는 무가 많았으며, 건강상태는 건강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Woo 등[10]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은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고, 친한 친구가 있으며, 성적 수준은 중간 정도가 가장 많았던 Jung[21]의 연구결과와 Lee 등[22]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이 다른 연구들에서 대상자의 특성과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성별과 나이는 간호대학생의 COVID-19 스트레스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은 여성이 남성보다 COVID-19 스트레스가 높았고, 전체 연령대 중 20~29세가 COVID-19 스트레스가 낮았다. 이는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차원의 스트레스와 임상차원의 스트레스가 나이와 성별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는 Lim 등[23]의 연구결과와 COVID-19 상황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나이가 차이를 보인 An 등[24]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COVID-19 상황에서의 감정 관리와 회복력 강화가 포함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간호대학생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성별, 지난 학기 학업 성적, 간호학과 지원동기, 간호학과 전공 만족도,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 중 남성이 여성보다 감성지능이 높았고, 지난 학기 학업 성적이 좋을수록, 간호학과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재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았다. 그리고 성적을 고려해서,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간호학과를 지원한 경우가 감성지능이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전공만족도와 건강상태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는 Woo 등[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주관적 정신건강, 주관적 신체적 건강, 전공 만족도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는 Park 등[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감성지능과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감성지능·학업성취 프로그램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융·복합적으로 개발하면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및 학과 적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

된다.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학년, 친한 친구 유무, 간호학과 지원동기, 간호학과 전공 만족도,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3학년 간호대학생이 대인관계능력이 좋았고,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가 대인관계능력이 좋았다. 또한 간호학과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재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좋았다. 그리고 성적을 고려해서,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간호학과를 지원한 경우가 대인관계능력이 좋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이 전공만족도와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는 Woo 등[10]의 연구결과와 대인관계 능력은 학년, 간호학 전공 만족도,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Park 등[7]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이 실천 가능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팀워크 중심의 비교과 활동을 권장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공 만족도 증진시키리라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지난 학기 수업에 대한 만족도, 지난 학기 학업 성적, 간호학과 지원동기, 간호학과 전공 만족도,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능력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지난 학기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난 학기 학업 성적이 좋을수록, 간호학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능력이 높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전문직이라서 간호학과를 지원한 경우가 대학생활적응능력이 높았다. 이는 학교 성적과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적응능력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는 Choi[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Lee[2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를 통해 수업 만족도와 학업 성적, 학과 전공 만족도 향상 할 수 있는 체력 증진 프로그램과 스스로 건강상태를 증진할 수 있는 체력 증진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COVID-19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능력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대학생활적응능력이 높은 간호대학생의 COVID-19 스트레스치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은 COVID-19 스트레스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Hong[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비대면 상황에서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생활 스트레스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Lee[2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COVID-19 스트레스를 낮추는 감정 관리와 회복력 강화가 포함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간호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능력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능력이 높을수록, 감성지능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상자의 감성지능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Woo 등[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대학생활적응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Lee 등[2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런 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 팀워크 중심의 감성교육프로그램이 간호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능력을 증진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능력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이 우수할 때, 대학생활적응능력도 좋을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는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대인관계능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Choi[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적응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는 Oh 등[2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키는 팀워크 중심의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이 간호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능력을 발전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COVID-19 스트레스, 감성지능, 대인관계능력, 나이, 간호학과 학년, 가정의 월 소득, 지난 학기 수업에 대한 만족도, 지난 학기 학업 성적, 간호학과 지원동기, 간호학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독립변수로 하였고, 대학생활적응능력을 종속변수로 회귀모형을 생성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능력에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요인은 COVID-19 스트레스, 감성지능, 나이, 지난 학기 수업에 대한 만족도, 간호학과 지원동기였고, 이들 요인의 결정계수인 R 제곱은 .478로 47.8%의 설명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COVID-19 스트레스가 낮고, 감성지능이 높으며, 나이가 많고, 지난 학기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간호학과 지원 동기에 따라 대학생활적응능력이 높아짐을 47.8%만큼 설명하고 있다.

이는 Choi[14]의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 전공만족,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라고 설명되었던 것과 유사하며, 간호 대학생은 스트레스에 대처를 잘하고,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한다는 Kim 등[13]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입학동기 중 적성, 전공만족도,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이었던 Han 등[11]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COVID-19 스트레스를 낮추고, 감성지능을 높이며, 수업 만족도를 높이는 감정 관리와 회복력 강화가 포함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학업성취 프로그램을 나이와 지원동기를 고려하여 개발한다면 대학생활적응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 유추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능력에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요인은 COVID-19 스트레스, 감성지능, 나이, 지난 학기 수업에 대한 만족도, 간호학과 지원동기였다. 이들 변수들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능력을 47.8%로 설명하였고, 간호학과 지원동기, 감성지능, COVID-19 스트레스, 지난 학기 수업에 대한 만족도, 나이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일 지역의 간호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화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자가 보고한 설문지를 척도로 사용하였기에 편향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둘째,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능력을 향상시키려면 감정 관리와 회복력 강화가 포함된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과 감성지능·학업성취 용·복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대학생활적응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할 때, 나이와 간호학과 지원동기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Reference

- [1] J. H. Park, D. Y. Kang, J. M. Kang, N. H. Gwak, C. E. Kim, M. K. Lee, "The association of faculty-students inter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image of nurses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the COVID-19 pandemic",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8, No.1, pp.101-112, Feb. 2022.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22.28.1.101>
- [2] F. Wang, "Harvard: study for relieving stress", p.267, Huaxia Publishing House, 2020, pp.12-15.
- [3] S. H. Hong, "Mediating effects of social iso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tress and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20, pp.301-310, Oct. 2021.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1.21.20.301>
- [4] M. R. Jo, H. J. Lee, Y. R. Kang, Y. J. Kim, K. M. No, S. E. Choi, "Impact of image of nurses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12, pp.101-110, June. 2021.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1.21.12.101>
- [5] J. E. Yi, H. W. Kwak,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11, pp.527-537, Nov. 2016.
DOI: <https://dx.doi.org/10.14400/JDC.2016.14.11.527>
- [6] E. Y. Yeom,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interpersonal problems, and academic stress on problem-solv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1, pp.209-220, Jan. 2019.
DOI: <https://dx.doi.org/10.35873/ajmahs.2019.9.1.022>
- [7] E. J. Park, G. S. Jeong, "Nursing students' college-related stress,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skil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8, No.3, pp.153-162, Aug. 2020.
DOI: <https://doi.org/10.15268/ksim.2020.8.3.153>
- [8] E. J. Park, S. J. Shin,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aring effica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Vol.6, No.2, pp.15-25, Dec. 2018.
DOI: <https://doi.org/10.17333/JKSSN.2018.6.2.15>
- [9] E. J. Oh, "Meditation effect of communication ability on relationships among self-awareness, empathy,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9, No.2, pp.549-560, Feb. 2021.
DOI: <https://doi.org/10.14400/JDC.2021.19.2.549>
- [10] M. Y. Woo, H. J. Bae, S. J. Hong, "The convergenc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on communication skil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11, No.12, pp.401-408, Dec. 2020.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0.11.12.401>
- [11] Y. M. Han, S. H. Kim, "Effect of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personality type,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8, pp.124-134, Aug.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8.124>
- [12] H. J. Jung, M. J. Chae,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academic stress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8, pp.403-417, Aug. 2018.
DOI: <https://dx.doi.org/10.35873/ajmahs.2018.8.8.039>
- [13] Y. S. Kim, J. Y. Seo, "Construction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26, No.6, pp.1439-1452, 2015.
DOI: <https://dx.doi.org/10.7465/jkdi.2015.26.6.1439>
- [14] S. H. Choi, "Effect of ego 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1, pp.148-156, Nov.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1.148>
- [15] E. H. Kim, S. Y. Park, Y. J. Park, H. Park,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OVID stress scale for Korean peop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22, No.1, pp.141-163, 2021.
DOI: <https://doi.org/10.15703/kjc.22.1.202102.141>
- [16] H. J. Kim, "Double mediation effect of the emotional clarity and cognitive-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tress and depression",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p.30-33, 2021.
- [17] H. W. Jung,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Ph.D dissert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pp.84-88, 2007.
- [18] S. M. Moon,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9, 2, pp.195-204, 1980.
- [19] Y. H. Oh, "Influence of interpersonal ability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 mediating effect of empathy ability", Master's thesis, Nambu University, Gwangju, Korea, pp.11-12, 2018.
- [20] E. H. Park,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the relation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adaptation to college", Ph.D dissertation, Kyungil University, Gyeongsan, Korea, pp.41-45, 2014.

- [21] H. Y. Jung,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ego resiliency on college life adap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7, pp.259-268, July. 2016.
DOI: <https://dx.doi.org/10.14400/JDC.2016.14.7.259>
- [22] K. O. Lee, H. J. Cha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llege adjustment and nursing professional 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10, pp.355-365, Oct. 2016.
DOI: <https://dx.doi.org/10.14400/JDC.2016.14.10.355>
- [23] H. S. Lim, J. L. Ryu, "The effect of stress on emotional intelligence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COVID-19 situ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Journal of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12, No.11, pp.521-531, Nov. 2021.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1.12.11.521>
- [24] H. R. An, J. Y. Lee, "Influencing factors of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djustment in COVID-19",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1, No.3, pp.34-45, Mar. 2021.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03.034>
- [25] J. E. Lee, "Influence of th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on-face-to-face situations",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6, pp.2829-2840, Dec. 2021,
DOI: <https://doi.org/10.37727/jkdas.2021.23.6.2829>
- [26] E. J. Oh, S. A.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between nursing student's adult attachmen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8, pp.94-102, Aug. 2016.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6.17.8.94>

김 경 아(Kyeong-Ah Kim)

[정회원]



- 1992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98년 9월 ~ 2012년 2월 : 경북전문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혜전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노인간호학